

## 교사의 일상과 하루에 관한 이야기

### A Narrative of The Da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박 천 환\*

####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일상적인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루어진 연구로 교사들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일산적인 하루에서 특히 교사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이런저런 지시와 장학지도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관심과 오해는 교사들의 하루를 바쁘게 혹은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교사들은 하나같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아무리 바쁜 일과를 보낸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었다. 힘들고 지친 하루 일과 속에서 교사들에게 보람을 주는 일도 있었다.

\* 주제어: 초등학교 교사, 일과, 내러티브

## I. 서론

최근에 이르러 교직에 대한 인기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사직의 인기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범대학 특히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교육대학을 지망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교육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개는 학비가 저렴하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지망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교육대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hpark@bnue.ac.kr)

학을 지망하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서, 교사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고 물으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 예컨대 “적어도 60살까지는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 즉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안정적이라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점도 매력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교육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물론이고 부모들과 가족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초등학교 교사를 지망하는 이유가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가?”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교사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세간에서는 교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늘상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리고 그 이유는 늘상 바쁜 일과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바쁜가? 그리고 그들의 바쁜 일과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이 되는 일인가? 더욱더 궁금한 것은 도대체 교사들은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가? 수업 이외에 달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사들은 어떤 일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일들을 시급한 일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등등의 궁금증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사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교사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의 일상을 교사들이 시각에서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교사들이 서술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들의 삶을 잘 설명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이 과연 어떤 삶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결과로 우리의 교육이 보다 나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 방법

### 1. 내러티브 탐구

인간의 삶은 어쩌면 이야기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내러티브, 즉 이야기란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 장기간의 삶에 관한 사건과 이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며(Clandinin & Connelly, 1999), 삶에 관한 이야기로 일종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Polkinghorne, 1988).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그들의 삶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을 밝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고 들은 것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해내는 방법으로 참여관찰이라는 방법으로 대표되는 문화기술이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기술의 중요한 포인트는 연구자의 외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라는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기술한다는 것이다(김영찬, 1980; 조용환, 1999). 문화기술적 방법이 인간의 삶에 관한 생생한 기술의 방법이라는 하지만 그 의미의 생성에 관한 한 외부자적인 관점이라는 점을 면하기는 어렵다. 내러티브의 장점은 이야기의 서술과 함께 의미의 생성에 있다(김재춘 외, 2009).

인간의 삶에 관한 탐구양식으로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Bruner(1990)는 내러티브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며, 또 의사소통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인간의 사고를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로 구분하고, 과학적이고 논리 정합적인 패러다임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맥락 의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간 주체 중심적인 내러티브적 사고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Bruner, 1986). 즉 그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는 다른 ‘서사적 인식 지평’,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활동 속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조명한다(김재춘 외, 2009, 62). 그래서 Bruner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그 동안 과학적 사고에 경도되어 왔던 교육문화를 반성하고,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고양식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강현석, 2004; 한승희, 2005). 내러티브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점들은 인간의 삶, 특히 초등교사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2. 탐구의 대상과 내러티브의 제공자

초등학교 교사들은 거의 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정적인 범주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수업 준비 및 수업 활동
- 생활지도
- 공문서 처리
- 상사교사나 동료교사와의 친교활동
- 연구 및 연수 활동
- 학부모와의 상담
- 승진을 위한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연구자의 강의에 수강하고 있는 부산교육대학의 교육대학원 교육방법전공의 대학원 학생인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이야기를 제공한 교사들은 모두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비교적 젊은 교사들이었다. 대부분의 이야기의 수집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마친 후에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심층면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술된 이야기들은 녹취의 과정과 구조화의 과정을 거쳐서 논문으로 완성되었다. 논문에 서술된 일부자료들 중에는 교사들로부터 직접 녹취한 것 이외에 이야기를 서술한 문헌(허정수, 2004; 박남기, 1997)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다. 이 자료들은 논문을 서술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모르지만 대략 위와 같은 일들을 할 것으로 간주하고 필자의 관찰과 교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그들의 하루를 우선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자.

### III. 초등학교 교사들의 하루

#### 1. 초등학교 교사의 하루일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교사들의 하루일과는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은 대체로 비슷한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예컨대 허정수(2004)는 부산의 바다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과시간을 가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이런 학교의 일과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일 거의 동일한 일과가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일과가 시작하기 전과 일과가 끝난 후에 프로그램은 주일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 각각의 일과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 가. 가장 바쁜 아침시간

초등학교 교사들의 일과도 다른 직장들과 마찬가지로 출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반 직장과는 달리, 출근 후 첫째 시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출근은 대개 8시에서 8시 30분경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첫째 시간은 보통 9시에서 9시 30분쯤에 시작된다. 출근 후 1교시가 시작되기 약 1시간 동안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바쁘게 한다. 우선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한다. 교문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한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데 지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학생들은 그거 학교에 와서 교실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1학년이면 몰라도 교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도할 것이 있는가? 등등의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나 학생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우리나라의 학교문화와 학생지도의 관례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학교를 도착하기까지 심지어 학교를 오는 도중에 아이들에게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학교, 특히 학급의 담임선생님에게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질서의식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길에서 사고나 당하는가?’ 하는 질책이 있게 마련이다. 사실을 두고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들이 어찌 학교 소관인가? 그것은 당연히 부모들의 일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교육풍토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등교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당번 교사를 지정하여 학교 앞의 횡단보도에까지 나가서 등교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1> 바다초등학교 하루 일과 시간표

일과	시작	마침	시량	요일	주간행사
봉사활동 아침시간 등교시간	08:30	08:50	20	월	· 전교애국방송 · 인성지도방송 · 각종 시상 · 직원연수 및 종례
독서 및 자습지도	08:30	09:00	30		
방송청취 및 아침협의	09:00	09:10	10	화	· 아침학교방송 · 자율연수
1교시	09:10	09:50	40		
2교시	10:00	10:40	40	수	· 아침학교 방송 · 직원체육
건강체조 및 중간놀이	10:40	11:00	20		
3교시	11:00	11:40	40	목	· 아침학교 방송 · 학생저축 · 자율연수
4교시	11:50	12:30	40		
점심	12:30	13:30	60		
5교시	13:30	14:10	40	금	· 아침학교 방송 · 전교어린이 회의 · 기획위원회 · 동학년 연수
6교시	14:20	15:00	40		
청소 연수 특기지도	15:00	16:00	60		
직원연수 및 종례	16:00	17:00		토	· 아침학교 방송 · 주생활반성 · 자율연수

아이들의 등교시간은 교사들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일찍 오는 아나는 8시경에 학교에 오기도 하지만 대개 8시 40분경이면 등교가 완료된다. 아이들의 등교가 완료되면 소위 아침자습 활동을 한다. 학교에 따라서 자습활동의 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독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 듣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수학과 같은 교과목의 문제를 연습하는 활동을 한다. 물론 이런 활동의 계획과 책임은 교사의 몫이다. 교사는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스스로 공부하도록, 즉 자습을 하도록 한다. 말이 자습이지 교사들은 사실 수업과 거의 맞먹는 업무 부담을 가지는 활동인 것이다. 아이들이 자습활동을 시작하고 나면 아이들이 제출한 각종 과제물을 점검한다. 우선 아이들의 일기장을 검사한다. 일기장 검사는 학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진다. 대개 고학년의 경우는 일기의 내용을 일일이 읽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그날의 일기장에 '참 잘했어요' 등과 같은 내용과 그림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는 것으로 검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는 맞춤법이나 표현 등 쓰기지도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전부 읽어 본다. 그리고 고학년과는 달리 일기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코멘트를 하게 된다. 사실 저학년의 일기는 그 내용이 많지 않은 탓으로 한 눈에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일기검사 이외에도 독서장 검사, 알림장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일도 때에 따라서

는 하게 된다. 어쨌든 30분도 남짓의 시간동안 이런 일들을 정말로 바쁘게 한다.

그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 교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  
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거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수업시간 ~~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집에 돌아갈 때면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니 아이들을 집에 보내놓고 나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에 그것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는 시간시간 때에 맞추어서 해야 하  
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하는 일도 있다. 대개 일반 직장에서 하는 일들  
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교사들의 일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  
이 시간에 쫓기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매이다 보면, 매 시간을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나. 지겨운 아침 조례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 조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개 월요일 아침에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평일에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의 주관으로  
조례를 하는 경우라면 그저 출석이나 점검하고 곧 바로 1교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학  
교 전체 전교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조례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한 때는 거의 모든 학교  
에서 ‘애국조례’라는 이름으로 전교생이 운동장에 줄을 맞추어 선 채로 실시하여,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 등으로 애국심을 높이는 행사로 실시하였으나, 요즈  
음은 거의 모든 학교가 교실의 앞자리에서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한다. 방송을  
통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산만하기 짝이 없다. 열의  
가 높은 교사들은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을 향하여 무언의 위협을 가하면서 학급의 분위기를  
휘어잡으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어느 정도는 아이들을 방치한고서는 약간의 휴식을 취  
하거나 자습시간에 못 다한 일들을 계속한다.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나 외부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을 수여하고, 또 학교에서 전하는 각종 전달 사항을 전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는 교장선생님의 훈화가 있다.

조례에서 아이들이 가장 참지 못하고 지겨워하는 순서는 교장선생님 훈화이다. 만약 운  
동장에서 조례를 하는 경우라면 교장선생님의 훈화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다. 교장선생  
님의 훈화는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그 때쯤이면 조금은 지겨운 시간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훈화의 내용이 지겨움의 원인이 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교장의 훈화가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  
들의 소란함이 극에 달할 때쯤이면 훈화는 끝나게 된다. 조례를 하는 날은 그 날의 일과는

그 시간만큼 늘어지게 되는 것이다.

#### 다. 험겨운 수업 준비와 수업

바야흐로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과의 씨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대개의 경우는 준비된 수업을 하게 된다. 교사들에게 있어서 수업은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초등학교의 수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등학교의 수업이 무엇이 어려우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 있는가?’ 하고 초등학교의 수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세인들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한다. 일반인들은, “초등학교 수업 그저 아이들과 노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수업내용 그거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가르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우선 다양한 매체들을 수업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교사들을 더 귀찮게 만들고 있어요. 그거 없었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이런 표현은 물론 진심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보다 더 많은 준비와 보다 세심한 계획을 하여야 하니,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수업활동으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일, 아이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 오게 하여 발표하게 하는 일,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생각을 두고 토론과 토의를 하는 일 그리고 교사가 말이나 글로 설명을 하는 일 등이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교사로서 하여금 편안한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아이들과 씨름을 하는 것이다.

관찰학습이나 참관학습을 위해서 야외, 특히 학교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교사들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운다. “오늘도 무사히” 흔히 택시에서나 볼 수 있는 글귀가 교사들에게도 동감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즉 간절히 비는 마음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들의 신경은 ‘오늘은 무엇을 배우도록 하여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실 수업보다는 야외 수업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높은 피로감을 느낀다.

수업의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는 동안에 방해만 없다면 학습의 진도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가



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의 호출이다. 그런 호출의 주된 원인은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보고사항 때문이다. 어느 교사는 수업 중의 호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수업 중 호출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을 호출하는 것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심부름하는 아이를 통해서 교장과 교감을 수업 중인 교사를 호출한다. 이는 엄연한 수업 방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를 모르는 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호출한다. 가서 보면 대체로 교육구청이나 본청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일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이것은 교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 호출은 5-10분간의 짧은 경우라면 이들은 이를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 그러나 호출을 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호출을 갔다 오면 그것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의 수업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수업이 교사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일임에도 일선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 라. 달콤한 휴식시간

이렇게 오전 1,2교시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주간체조시간을 가진다. 아이들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음악과 동작을 따라 하지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체조하는 아이들보다는 장난을 치거나 노는 아이들이 더 많다. 이 시간동안 교사들은 동학년 교사 모임을 갖는다. ‘커피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으로 동학년의 교사들이 학년부장선생님의 교실에 모여서 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잡담을 한다.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의 체조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지만 교사들은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교사들에게는 이 시간이 동료교사들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여기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가는 교사들이 반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로만 그럴 뿐 교사들에게 강하게 하거나 이 시간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체조시간이기는 하지만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달콤한 휴식시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 마. 점심시간 : 또 다른 씨름

이렇게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다. 급식당반이 급식 운반에 식판, 밥통, 국통 그리고 찬통을 운반해 와서는 차례대로 배식을 한다. 교사는 배식의 순서를 정해주고 나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골고루 가져가도록 지도한다. 점심시간에도 교사는 수업시간에

못지않게 학생들과의 씨름이 전개된다. 영양사가 작성한 급식 식단은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호사스런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기는 역부족이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김치는 아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음식이다. 깍두기를 배급할 때면 배급하는 아이에게 한 개만 달라고 사정을 한다. 간혹 아이들이 즐겨 먹는 소시지라도 나오는 날에는 배급하는 아이들의 어깨엔 힘이 들어간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지도는 배급된 음식을 남김없이 먹도록 하는 것이다. 배급 후에 남은 음식도 문제가 되지만 식사 후에 남은 잔반은 더욱 처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모든 교실에서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실을 두고 말하면 아이들의 식습관이야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도하여야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이를 지도하여야 하고, 특히 편식의 습관을 지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식사지도는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씨름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교사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식사를 끝낸 후에는 아침에 채 다 못한 일기장 검사와 숙제 검사를 한다. 그리고 나면 5교시가 시작되기까지는 10여분의 시간이 남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동학년 교과교육연구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한다. 오전에 치른 두 번의 씨름으로 교사는 약간 지쳐 있다. 오후 일과를 위해서는 좀 쉬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잠깐 눈을 붙이곤 한다.

#### 바. 청소지도와 방과 후 지도

오후 6교시가 끝나고 나면 3시 경이 된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청소를 한다. 교실 청소를 맡은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교실 이외에 특별구역 청소를 맡은 어린이들은 청소구역으로 간다. 담임교사는 교실과 특별청소 구역을 오가며 청소지도를 해야 하지만 늘 지도하는 것은 아니다. 교실청소를 할 때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안전사고이다. 청소도구로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아이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청소를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시간에 교사는 우선적으로 장난을 하는 아이가 없는지를 살핀다.

청소시간에 유리창도 말끔히 닦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유리창을 닦지 못하게 한다.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창틀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학년들의 교실은 2층이나 3층이기 때문에 유리창 틀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한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청소검사라는 것을 한다. 교실 청소는 칠판, 교실바닥, 책걸상, 쓰레기통 등의 청결상태와 책걸상의 정돈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구역 청소구역은 청소상태와 청소도구의 정돈상태 등을 점검한다.

청소와 청소검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교하지만, 숙제나 아침자습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 학습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장난이나 소란을 피운 아이, 친구들과 싸운 아이, 다른 반 교사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 전날 PC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한 아이 등등을 면담하고 훈계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을 한명씩 따로따로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하는 훈계와 지도를 한다.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나면 학급의 둘러보며 환경정리 상태를 점검한다. 퇴근 시간까지는 1시간가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하는 행사가 없으면 교실을 둘러보고 나서 내일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업무를 맡은 교사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한다. 공문서 처리를 비롯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등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체로 이 시간에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 직원 연수나, 회의 혹은 체육활동이 그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방문과 면담도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 2. 교사를 더욱 바쁘게 만드는 일들

교사의 일과는 늘 다람쥐 쳄 바퀴 돌듯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주일을 단위로 달라지는 일과도 있지만 매학기 혹은 매년을 주기로 하여 달라지는 일들도 있다. 그런 일 가운데는 교사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일도 있지만,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들이 있다. 그 중 으뜸가는 일은 장학지도이다.

### 가. 장학지도

주임이 회의를 다녀오더니 밝은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청 장학진의 일정이 바빠서 장학지도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일제히 울리는 동학년 교사들의 환호소리.

“이게 웬 황제냐”

모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나도 갑자기 후련해지고 편해지고 등 뒤에 있던 짐들이 일순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만 같다.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겨났을까? 우리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 다음에야..

교육청 장학지도. 그것이 그렇게도 우리를 힘들게 했더라 말인가?

장학지도가 교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 닿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이다. 정말로 장학지도가 예정되어 있으면 온 학교는 일주일 정도 비상이 걸린다. 학교 구석구석의 청소

는 물론이고 교실의 환경을 꾸미는 일은 정말로 교사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 교사가 연구수업을 하는 듯이 수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교사들이 수업을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복장도 단정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의 복장까지도 단정하도록 당부를 한다.

이런 일화도 있다.

#### 장학지도와 ‘연극수업’

장학사님이 오실 때 반드시 교육기자재를 사용할 것.

이동중심의 수업을 전개할 것.

장학사님 등장!

그러나 나는 패도 설명 후 OHP를 불러고 했으나, 패도 설명 시에 교실에 들어오시는 장학사님과 교장, 교감선생님. 당황하여 패도 설명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OHP를 전개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적시 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그 때 잘 맞춰 연극(?)을 했어야 하는데 눈치 없이 기자재를 못 쓰다니.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았다. 센스 없는 선생이 되어 버렸다. 장학사님이 오시는 날은 하루를, 아니 그것으로 인해 많은 시간들을 잃는 것 같다. 일년에 학기별로 두 번 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박남기, 1997).

교사들에게 장학지도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짐이다.

#### 나. 연구수업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매년 1-2회의 연구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입교사나 새로 부임한 교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연구를 위해서 각 학교마다 조직되어 있는 교과연구회에 가입한다. 모든 교사는 한 교과를 선택하여 연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회마다 연구부장이 있다. 교사들은 대개 교과를 선택할 때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특기가 있는 교과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기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교과를 선택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주지 교과인 영어나 국어 그리고 과학 등의 교과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업연구 발표는 학년 단위의 공개수업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가리켜 교사들은 ‘연구수업’이라고 한다. 공개수업이 가까워지면 동학년 교사집단은 자기학년의 단합된 모습과 특성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공개 수업의 일자는 학년 단위로 동일한 시간에 정하여진다.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한 학년의 모든 교사가 공개수업을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사들은 공개수업의 날이 가까워지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동료교사들의 도움을

위한 회의가 찾아진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지만 대부분 꼭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전시용인 경우도 많이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은 자료뿐 아니다. 공개수업을 하는 날이면 교실 청소, 환경 꾸미기, 참관교사의 접대 등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면 수업은 다소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공개수업이 끝나고 나면 협의회가 열린다. 교장을 비롯하여 교감선생님과 해당 교과연구회 멤버들 그리고 동학년 교사들이 참석한다. 먼저 수업연구자의 자평이 있는 후에 교사들의 질문과 비평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의 지도조언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회의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질문과 의례적인 칭찬으로 일관된다. 수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개선점을 찾아보려는 찾아볼 수는 없고 그저 서로 듣기 좋은 소리로 형식적인 평가회가 되고 만다.

서로 힘들게 준비했는데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죠. 어쨌든 협의회는 거북한 자리예요.

순간의 자리만 때우면 그만입니다. 적당히 칭찬해주고 약간의 조언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죠. 만일 내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토를 달면 내일부터 학년 끼리 원수지고 못보죠. 더군다나 다음에는 우리 학년의 연구 수업 차례인데 좋은 것이 좋잖아요.(허정수, 2004)

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의 생각에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다. ‘괜히 매일 만나는 사람 끼리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다. 그래서 연구수업은 본래의 목적인 수업의 개선보다는 교실의 환경이나 학습에 동원된 자료의 양과 같은 외형적인 면에 대한 논의에 치우치면서 평가회를 마친다.

#### 다. 학부모 면담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후 시간에는 심심찮게 학부모의 방문이 있다. 예전에는 학부모의 방문을 교사들은 반겼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사뭇 다르다. 학교를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학부모는 대부분 교사들에게 거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거북한 소리의 내용은 대개가 오해로 빚어진 일들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말만 믿고 자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고서는 이를 항변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한다.

차별대우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무서울 정도로

영악해요. 그리고 특별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차별받는 느낌을 받으면 금방 반응이 와요.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 눈치를 보는 편이죠.

교사들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러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학부모의 오해

아침부터 기분이 뒤숭숭했는데 문숙이 어머니가 방문했다. 청소도 해주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란다. 들어보니 내가 문숙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번 임원장 식사 때 문숙이 아버지의 직업을 꼬치꼬치 물어본 뒤로 아이가 학교에서 별로 발표도 하지 않고 학교생활도 영 시무룩해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은근히 속이 상했었던단다. 어느 날은 아이가 즐거운 생활 시간에 씨름에서 제 차례가 되었는데도 선생님이 자기를 시키지 않고 다른 아이를 시켰다며 대단히 화가 나 집으로 왔더라는 것이다. 결국 수업시간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학부모의 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씨름을 하기에는 상대 아이와 몸집이 너무 맞지 않아서 상대가 될 것 같은 다른 아이로 대체했는데 그것을 아이가 오해했나 보다,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가면서 어머니를 납득시켰다. 그러자 어머니는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동안 해가 저절로 풀려진 것 같으며 오히려 사과를 하셨다. “뉘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썩 좋은 기분은 아니다(박남기, p.110).

#### 라. 운동회와 학예발표회

매년 가을이면 치르는 운동회, 참으로 교사들을 어렵고도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만국기 펄럭이는 파란하늘 아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점심을 싸와서는 하루를 즐기던 꿈과 같은 운동회이지만 교사들에겐 그 꿈이 없어진지 오래다. 아이들에게는 운동회가 즐거운 행사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운동회나 학예회가 열리는 당일의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교사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과정이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운동회의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연습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운동회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보여주는 운동회가 되기 때문이다. 매스게임과 같은 집단활동의 지도를 맡은 교사에게는 그 1개월의 기간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나날이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거나 합니까? 돌아서면 단 짓하는 아이들, 행여 크게 야단이라도 치거나 벌이라도 주면 다음날 당장 교장실로 호출입니다. 정말 못해 먹을 짓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푸념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교사들에게 더욱 골치 아픈 일은 안전사고이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몇 시간을 활동하다 보니 자연 이런 저런 부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상의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한 것들로 프로그램들이다. 기마전과 같은 다소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는 동안의 교사들은 내낸 마음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학예회는 운동회만큼은 아니지만 그것 역시 교사들을 피곤하게 한다. 대개 학기말에 한번쯤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가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학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지는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운동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친 후에 무언가 보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학예회는 운동회와는 달리 아이들이 계획하고 스스로 연습하여 준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경이 덜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고 그것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교사가 감독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예회는 그래도 마치고 나면 무엇인가 성취하였다는 뿌듯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운동회는 마치고 나면 그저 허전하고, 이런 걸 왜 하는가 싶죠.

## 마. 탁상 행정

교사들의 하루일과와 업무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 중에 정말 교사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성과위주의 행사이다. 다음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 교감선생님과 함께 느닷없는 출장

농어촌 체험 학습 자체계획서를 지참하고 교육청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에 가보니 여선생은 단 둘 뿐이다. 눌러 앉아서 듣고 있기가 민망하다. 교감선생님과 실무 담당 선생님들이 교육청의 지시사항도 전달받고, 문제점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나니 다들까 농어촌 체험학습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문제가 많다고 야단이다. 우리야 하라는 대로 하면 그만인데 농어촌 학교의 선생님들은 반발이 장난이 아니다. 시골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남의 아이들까지 덩으로 가르쳐야 하고 귀찮은 공문서도 처리해야 한다니 누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교육청의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농어촌 학교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책상에 앉은 채 이

상만 꿈꾸며 세워진 계획이 이렇게 일선에 혼란과 시간낭비를 야기한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저 밀어붙이면 되겠지 하는 탁상행정과 권위주의 행정이 그렇지 않은가? (박남기, 1997).

일선 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각종행사는 당연히 각 학교의 사정과 맞아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적인 사업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위에서 말하는 농촌 체험학습은 도시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행사를 추진하고 담당하는 농촌의 학교는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교사들이 힘이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성과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맥 빠져 하는 것이다.

### 3. 그래도 즐겁고 보람된 시간들

초등학교 교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만은 아니다. 때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즐기는 일도 있고, 또한 힘들기는 하지만 되돌아보면 흐뭇한 일들도 있다. 그것은 모두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며,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다. 그 중 가장 으뜸가는 일은 체육행사인 배구시합이다.

#### 가. 체육의 날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체육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날이면 거의 모든 교사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으로 나간다. 운동장에서 때로 족구 등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배구 시합을 위해서 연습경기를 한다. 선수로 선발된 교사는 연습게임을 하지만, 배구를 잘 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배구코트 주위에서 공 쭉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현상은 신학기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구청단위의 배구시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배구요! 거의 모든 교사들이 미쳐있어요. 배구 잘 하지 못해도 우짜든지 배구 코트 근처에서 얼른거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왕따 됩니다. 왕따는 학생들에게만 있는 기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학교 선생들이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못마땅해 하는 관리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학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좀 관심이 높은 교장교감은 배구 잘하는 교사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학교경영에 큰 도움이 되니



까요. 우승 비슷한 것이라도 하고 나면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교사가 하나로 뭉쳐진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많은 체육활동 중에서 유독 배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의 배구 열풍은 열광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열기는 사그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결코 그 열기는 식지 않는다. 아마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교사들이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일년내내 리그전을 가질 만큼 열성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내에는 몇 개의 리그가 있다. 매주 화요일에 리그전을 갖는 그룹과 토요일에 리그전을 갖는 그룹이 있다. 그리고 리그에는 최소 7-8개의 학교 팀이 가입되어 있다. 배구 열기가 이러다 보니 배구를 잘하는 교사의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남교사는 물론이고 여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내에서 인화단결의 중심에는 배구선수 교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이유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는 교사들의 자율연수에서 배구연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초급과 중급의 연수가 있는데 초급과 중급 모두 테스트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려고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

#### 나. 방과 후 자율연수

교사들의 연수는 대부분 방학 중에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방과 후에 1-2시간 받을 수 있는 연수도 있다. A교사의 경우는 국악연수를 열심히 받고 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받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단소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장고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는 사물놀이를 본격적으로 배워 볼 참입니다. 교과운영에 도움이 되나요? 글썄,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재미있어요. 학교 마치고 가서 실컷 두들기고 나면 온 몸이 나른하지만 스트레스는 싹 달아나지요. 어쨌든 시원합니다.

학교 일에는 늘 시큰둥한 편이지만 국악연수는 열심히 받는다. 물론 정상적인 퇴근으로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연수가 있는 날은 3시 경에 퇴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연수를 핑계로 일찍 퇴근하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또 상당히 많은 교사들, 특히 예능 관련 연수를 받는 교사들은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즐

접게 연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고단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IV. 결 론

교사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이 논문은 철저하게 교사들의 하루일과를 이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맨 먼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교사라는 직업이 결코 한가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세상에 그 어느 직업도 한가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교사는 다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도 역시 하루를 한가하게 지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그 바쁜 하루 일과가 거의 융통성이 없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하루는 매시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며, 이것이 다른 직업인의 하루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첫째 시간의 국어수업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시간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 시간인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른 직장과 비슷하게 8시경에 출근하여 다른 직장보다는 다소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5-6시 경에 퇴근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짝 짜인 하루의 일과, 한 치의 융통성도 허락하지 않은 일과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짝 짜여진 일과인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급한 업무는 교사들로 하여금 더욱 바쁜 하루를 보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 수업만이라도 전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수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수시로 불거지는 업무들이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는 교육청의 호출과 보고이다. ‘공문서 없는 하루’, ‘보고서로부터 해방되는 하루’ 그리고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하루’ 그리하여 아이들과 온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루가 초등학교 교사들이 소망하는 하루이다. 만약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날은 결코 고달프지도 않을 것이며, 온 몸이 부서지도록 힘든 하루라 할지라도 그리고 눈코 뜰 사이가 없는 하루라 할지라도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현석(2004). 지식구조론의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의 구성. *교육과정연구*, 제 22권 2호. 한국교육과정학회, 55-85.
- 김영찬(1980). *생활 문화 교육*. 교육과학사.
- 김재춘, 배지현(2009). 의미 생성 활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함의. *초등교육연구*, 제22권 1호. 한국초등교육학회, 61-82.
- 박남기(1997). *초등학교 교실에는 지금*. 학지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한승희(2005). 과학적 사고와 서사적 사고의 교육적 의미: 과학적 사고와 서사적 사고에서 추론과 정서. *교육과정연구*, 제23권 2호. 한국교육과정학회, 39-64.
- 허정수(2004). *초등학교 신입 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uner, J.(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vard Univ. Press.
- Bruner, J.(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vard Univ.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1999). *Shaping a professional identity: Stories of educational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 Polkinghorne, D. E.(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BSTRACT

## A Narrative of The Da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Park, Cheon-Hoan(Busan National Univ. of Education)

This article was to investigate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work daily and was constructed by the stories that teachers told. The result shows that school teachers had very busy daily works. The works that make teacher busy especially were various directions and supervis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arents' deep concern about their children often make teacher exhausted and sometimes their misunderstanding about teacher's discipline make them exhausted too. Every teacher wants to do his best to their original job to teach their students, and then they could be tolerable any troubles. But something give them a sense of satisfaction in spite of busy and hard daily work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 daily work, narrative.